[UCI]I804:24011-200000231694

2007年 2月

教育學碩士　一般社會教育學位論文

代案 學校의 實態와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一般社會敎育專攻

文 美 英

代案 學校의 實態와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Actual State and Activation Scheme of Alternative School.

2007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一般社會敎育專攻

文 美 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481 2007-04-09

代案 學校의 實態와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指 導 敎 授　金 英 坤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6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一般社會敎育專攻

文 美 英

문미영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문정민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용헌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영곤

2006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국문요약 ····· 1

Ⅰ. 서 론 ····· 4

1. 연구의 필요성 ····· 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Ⅱ. 이론적 배경 ····· 8

1. 대안학교의 개념 ····· 8

2. 대안학교의 역사적 배경 ····· 12

3.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유형 ····· 16

가. 이념 형태에 따른 분류 ····· 17

나. 운영형태에 따라 ····· 20

다. 제도교육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 22

Ⅲ. 대안학교의 실천사례 ····· 24

1. 성지고등학교의 실천사례 ····· 28

가. 학생 선발 및 전형방법 ····· 28

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 28

다.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 29

2. 한빛고등학교의 실천사례 ····· 32

가. 학생 선발 및 전형방법 ····· 32

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 33
다.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 33

3. 간디학교 ····· 34
가. 학생 선발 및 전형방법 ····· 34
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 35
다.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 35

Ⅳ. 대안학교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39
1. 대안학교의 문제점 ····· 38
가. 사회적 인식의 문제 ····· 40
나.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여건 ····· 42
다. 교사진의 충원과 운영 ····· 45
2. 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 ····· 46
가. 대안학교 교육과정 제도를 위한 노력 ····· 46
나. 대안학교를 이해하는 교사의 양성과 교사상 정립 ····· 51
다. 교육여건 ····· 58

Ⅴ. 결 론 ····· 61

참고문헌 ····· 64

ABSTRACT ····· 67

< 표 목 차 >

【표 1】 교육부 인가 대안 대안고등학교 현황 ····· 26

【표 2】 대안 대안고등학교 교육의 특징 ····· 27

【표 3】 영산성지고등학교의 교육과정 ····· 31

【표 4】 간디 학교 교육과정 ····· 37

【표 5】 대안교육 과정 교과목 편성 예시 ····· 50

국 문 요 약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공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교육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안학교가 부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안학교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교육이론가 등이 자발적으로 연구 실천하는 학교로 일반 학교교육이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유형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키 위해 성지고등학교, 한빛고등학교, 간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여건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대안학교들의 실천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문의 실천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대안학교들은 다음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안학교들이 추구하는 교육이념 및 인간상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하고 공동체의식을 지닌 인간, 도덕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다.

둘째, 교육목표는 전인교육과 사회성교육, 생명과 생태를 중시하는 친자연적 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교육내용은 실생활에 의한 살아있는 교육을 추구하며 학습활동을 통해 지식보다는 사회성 교육에 비중을 두며 자연친화적 교육 환경 속에서 일과 공부를 함께하는 감성교육과 노작교육 지향한다.

넷째, 교육방법은 자신의 관심과 장래희망에 따른 개별적 학습선택과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맞는 수업과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방법을 지향한다.

다섯째, 작은 학교를 지향하며 생태적 삶의 가치를 존중하며 전교생이 교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렇듯 대안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안학교들의 실천사례를 분석을 통하여 논자는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대안학교 공통적 이념인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학생을 이해하고 헌신 할 수 있는 사명의식을 가진 대안학교 교사 양성과정이 없고, 대안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과 낮은 임금 및 처우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셋째, 열악한 교육시설 및 학교부지 마련 문제와 작은 규모의 학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재정의 문제가 있다.

넷째,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 교육관련 기관을 비롯한 제도권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및 선입견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대안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논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안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대안교육을 이해하는 교사의 양성과 연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대안학교 규제개혁을 통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대안교육은 교육실천가의 의지,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제도개혁 그

리고 교사의 자발적 실천의지가 병행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교육의 긍정적 측면을 제도교육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실천가와 교육관계자가 위와 같이 대안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대안교육이 확산된다면 획일화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재의 교육풍토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화, 세계화 등의 시대적 요청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교육의 현실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실 붕괴와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위기적 현상은 21세기가 속도경쟁을 하는 지식기반사회인 것에 반해서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20세기의 산업화시대의 대량생산 체제의 교육으로 획일화된 학습, 암기중심의 교육, 체제유지적 교육제도, 통제적인 환경, 입시위주, 교사중심 수업, 경쟁조장의 산실로 자리매김 되는 동안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구조적 병폐와 철학의 부재현상이 나타나 교육의 걸림돌로 작용되면서 학교 체재 재구조화 문제를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학생, 학부모들의 변화 경향을 보면 학교 교육의 존재 가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학생들의 경우, 학습동기를 상실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가능한 학생들까지 학교 밖의 배움터를 찾아 나서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도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학교'를 선호하거나, 자신들의 교육 철학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모색들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현행 제도적 형태의 학교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학교와는 다른 교육 목표, 내용과 방법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대안학교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학교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교육이론가 등이 자발적으로 연구·실천하는 학교로 기존 제도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도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으나, 대안학교 내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기존의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교육의 '대안'으로 대안학교가 설립되고 사회적인 이슈화와 함께 일부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대안학교로 몰리고 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대안학교의 사회 환경과 미흡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학생들의 이상적인 학교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실망의 소리와 함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 속에서 대안학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그 학교 설립취지에 적합한 제반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새로운 학교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대안학교의 개념과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실천사례와 대안학교의 문제점들은 분석하여 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현재 전국에는 대안교육을 행하는 학교들이 많이 산재해 있으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들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교육 독지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자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대안학교들 중 성지고등학교, 한빛고등학교, 간디고등학교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학교들의 교육이념, 교육과정, 전체적인 운영방법과 교사 채용 등을 분석하여 대안학교에 적합한 활성화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앞에서 말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과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대안학교의 이론적 배경으로써 대안학교의 개념, 대안학교의 역사적 배경, 대안학교의 유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안학교의 정의를 유추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대안교육의 실천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의 대표학교인 성지고등학교, 한빛고등학교, 간디고등학교 3곳을 살펴보았다.

제 4장은 제 3장에서의 분석을 근거로 대안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여 정리하였다.

제 5장에서는 이 논문을 요약하고 연구자의 주장 제언으로서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는 대안학교 및 교육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서 대안교육의 개념과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고, 대안학교의 실천사례와 활성화 방안 연구는 학교가 발행하는 모집요강, 논문과 단행본, 각 학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 대안학교 전문잡지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대안교육에 대한 이론 및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선행연구 자료 및 교육부의 행정자료, 각 학교 홈페이지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안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가 빈약하다.

둘째, 각 대상이 된 학교마다 중점적인 교육활동이나 교육 방법, 교육형태 등이 다양해 공통점을 추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정규학교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위해서 자연친화적 체험활동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학교적응력을 길러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대안학교 실천사례가 다른 면에서 보면 대안학교를 미화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대안학교 중 일부 몇 개 학교만을 연구 분석한 자료여서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특성을 전부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석결과를 우리나라 전 대안교육에 대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안학교의 개념

대안학교의 개념 정의를 위해 대안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alternative'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둘 혹은 셋 이상 에서 하나를 택할 여지" 또는 "기존의 방안을 대신할 만한 더 좋은 방안"이 바로 대안(代案)이다. 대안학교는 이러한 안을 실천하는 학교로 어느 경우든 현재의 학교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아가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안을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라고 볼 수 있다.[1)]

따라서 대안학교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현존하는 교육의 근본적인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학교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Fantini[2)]는 대안학교는 일차적으로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형식으로 시작하여 발전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대안학교의 일부는 자유학교라고 명명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다.

Barr[3)]는 '대안학교는 학습모델의 다양성, 열린교육, 개별화된 교수, 경험적 학습과 행동수정에 유용한 학교"하고 주장한다.

Cooper[4)]는 교육백과사전에서 '대안학교는 표준적인 공립학교들이 제공하는 것과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

1) 이선숙,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성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01), p.7.
2) Fantini, M. D.(1976).Alternative Education, New York : Doubleday. pp.57~61
3) Barr, R. D.(1981) "Alternative for the Eighties : A Second Decade of Development", Phi Delta Kappan. Vol.62,No.8. pp.570~573.
4) Cooper, B. S.(1994). "Alternative Schools and Program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Kidlington :Elsevier Science Ltd. p87.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교'라고 정의한다.

Smith[5]에 의하면 대안학교는 미국 교육에 중요한 운동으로 대안학교는 '지역 사회 내의 전통적 학교에 의해 제공된 경험에 대한 대안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모든 가족들이 선택 가능한 학교'라고 해서 학습모델의 다양성, 열린교육, 개별화된 교수, 경험적 학습과 행동수정에 유용한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즉, 대안적인 학교란 표준화를 지향한 획일적인 체제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말하며, 그들은 1960년대 교육개혁 이후 등장한 대안학교들의 특징을 학생과 부모, 교사와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 참여와 헌신에 의한 유지, 포괄적인 목적과 목표의 설정, 학교 운영의 유연성, 학생 수 200명 안쪽의 작은 규모와 그로 인한 탈 관료적 성격들을 들고 있다.[6]

실제로 미국에서 '대안학교'라 불렸던 학교들은 다소 급진적인 성격을 띤 것에서 기초 교육을 강조하는 전래의 보수적인 지식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탈 학교적'인 형태에서 전통적인 형태와 유사한 학교까지,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다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전에도 기존의 학교교육이 지닌 한계에 대하여 논의 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다양한 실천을 모색하는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칭하였다.(교육부 1999:422)

대안에 대하여 고병헌[7]은 대안학교에서 말하는 대안은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택하고 있는 이념적인 성향이나 인간관, 자연관, 사회관, 세계관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즉, 문제 해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의 선택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는

---

5) Smith, V. H.(1974). Alternative SchoolsThe Development of Options in Public Education, Lincoln : Professional Education LPublication, Inc. p14.
6) 오명희, 『우리나라 대안학교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01), p.4.
7) 고병헌, "교육 개혁 운동으로서의 대안교육운동", 처음처럼 11월-12월호, 통권 제4호(서울 : 내일을 여는 책, 1997), p.9.

단순히 새로운 학교와는 다르다.

새롭다는 것은 행동적·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의 변화, 가치 형성의 변화, 기존 가치들의 근본적인 전제들과 현 사회 질서와 학교 제도가 뿌리를 두고 있는 토대 그 자체의 변화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정유성은 '제도에 비켜서 있다가 제도 곁에 들어오는 고전적 대안학교에 비해 제도 밖에서 새로운 교육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험학교 운동이 더 대안적이라고 하여 여기서 대안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이상향을 품은 교육의 새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자체까지 기존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꾀하는 학교'라고 한다.

대안교육은 19~20세기 동안의 개발 중심의 근대적 가치관인 생존경쟁이나, 적자생존의 가치관에 입각한 제도권 교육이 인간간의 유대를 단절시킴으로써 공동체적 친밀성을 와해시키고 인간성을 비인간화 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과의 친화력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에 대한 반기로 나타난 반 제도권 교육 운동의 하나이다.

이러한 반 제도권 교육의 움직임 중의 하나인 대안학교는 정규학교나 비정규학교에서 교육 이념 및 운영방식으로 독특성을 가지고 기존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대안적인 학교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지식 위주의 기존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8]

교육부에서는 대안학교란 공립학교들이 제공하는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도록 학생과 학부들을 위해 특수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들을 제공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는 대안학교의 개념을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목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

8) 정유성,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p.143.

하는 학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식 위주의 기존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실천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97년에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5483호 1997.9.3)에 따라 정규 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현행 교육법 초·중등시행령 제91조 1항에 의하면 대안학교는 1998년 초부터 새로운 고등학교의 유형으로 제안된 특성화고등학교 속에 포함시켜서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특성화, 자연과 어울리는 다양한 체험 학습을 통한 인성함양에 초점을 맞춘 전인교육 지향의 고등학교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이전의 자치적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유지되던 대안학교도 설립 요건을 갖추어 정규학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9)]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국에서는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로 국가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에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알반 학교와는 다른 인간존중, 생명존중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계 회복과 학생의 경험과 자유를 존중하는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는 학교이다.

다시 말해 대안학교는 공교육체제가 구축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획일적이고 지식위주의 편중된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대안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학교의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고를 가진 교사가 대안적인 교육내용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경험과 자유를 바탕으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대안적 교육방법으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학교이다.

---

9) 오명희, 전게서, p.5.

2. 대안학교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이 외국의 영향을 받아 대두되었으므로 대안교육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 대안학교의 역사를 소개해야 할 것이다.

대안학교들이 세계적으로 생겨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는 귀족들과 지식인들만을 위한 교육이 20세기에 들어 보편화된 근대학교 교육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 노동력 양성을 위한 훈련과 통제를 주요 기능으로 하여 확립된 공교육 제도는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획일화된 기준과 내용, 방법에 의존하여 교육적 소외와 비인간화 현상을 낳는 등의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0]

근대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으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대두된 것과 같이 20세기 후반의 공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대안교육운동은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 사이에 공교육과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과 반론이 제기되면서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시도로서 '대안학교 설립'이 이루어졌다.[11]

외국의 대안교육은 매우 다양하여 시대와 장소, 국가에 따라 논의의 방향과 기준이 달랐다. 특히 1977년 5월 「Emile」의 출간으로 기존교육에 대한 비판이 공식화된 이래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다.

중요한 사례들로는 Lichtwark(1852-1914)예술교육운동, 영국의 Reddie가 1889년에 설립한 Abboscholme 학교와 독일의 Lietz가 1898년에 세운 '전원학사운동'(Landerziehungsheim) 등이다. Steiner는 그의 독특한 인지학적

---

10) 이종태, 『대안교육의 가능성과 한계』(한국교육연구, 1998), p.122.
11) 송순재, 『학교를 위한 삶인가, 삶을 위한 교육인가』(내일을 여는 책, 1997), p.

세계관과 방법론을 기초로 1919년에 설립한 Waldorf schule는 객관적 교재와 과정을 중시하였으며, 제 1차 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설립된 프리네 학교(Freinet) 역시 학생의 책임성과 협동 작업을 중요한 교육목표로 설정하여 새로운 대안학교로 발전하였다.[12]

이러한 대안학교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서의 공교육 비판의 논거들은 첫째, 기존의 학교가 관료주의적 통제 체제로 일관하였으며, 둘째, 교육이 기존의 계층 질서를 재생산하는데 집중해 있었다는 것, 셋째, 교사가 주도하는 교사중심의 교수법에서의 언어 중심적이라는 것, 넷째, 교육구조 자체가 공동체 의식을 배제하고 현대 산업산회의 새로운 산업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경쟁과 효율성만을 부각시킨다는 것, 마직막으로 너무 실증주의적 과학에 임하여 교육함으로서 인해 다면적이고 포괄적이며 다양한 안목에서 교육할 수 없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대안교육운동은 교사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의 수업주체의 전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의 중시, 학교교육을 국가의 발전이나 국가 정책과는 거리를 둠으로써 비정치적 성격을 부각시켰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13]

미국의 경우 1894년에 신설된 시카고 대학교의 철학, 심리, 교육학과의 주임교수였던 Dewey는 그 대학교의 교육학과 부속학교로서 실험학교를 창설한 것이 미국에 있어 대안학교의 시초가 되었는데, Johnson도 '새로운 학교'(Organic schools at fairhope)라는 이름의 대안학교를 설립함으로 미국 대안교육의 선구가 되었다.[14]

1950년대까지는 대안학교에 대한 뚜렷한 연구가 없다가 1960년대 와서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새삼 부각되었다. 1960년대 초 미국정부는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교육개혁 정책을 시도하는데, 1960년

12) 곽유정, 『대안학교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 2000), p.11.
13) 전승필, 『한국 대안학교의 실전 사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1998), p.10.
14) 박정석, 『한국 대안학교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외대, 2002), p.8.

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 사이에 이 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1964년 버려진 거리의 아이들 30여명을 모아, 제도의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한 Dennison의 '자유학교'(free school)를 시작으로 1966년에는 Kozol이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학교'(new school of children)를 설립함으로서 본격적인 대안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 대안학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다.[15]

영국의 Schu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바탕으로 작고, 소규모의 미니학교 형태를 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 번갈아 가며 교육할 수 있는 '탄력 있는 학교 교육'과 '미니 학교 교육'으로서 기존의 큰 규모의 학교 내에서 인간 규모에 적합한 단위를 창출하여 단위별로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교육방식이다.[16]

독일의 경우 1919년에 Steiner에 의해 Waldorf Schule가 시작된 이후 1967년 부모들이 주도하여 자유로운 탁아소가 설립되었고, 1972년에 들어서는 가장 현대적인 대안학교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록제학교'(GLOCKEE-SCHULE)가 1977년에는 '자유초등학교'와 '작업학교'(Werk Schule)등이 설립되었다. 공교육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대안교육에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대안교육의 시도를 통해 공교육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대안교육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처음에는 대안학교에서 출발하였으나 후에 정규학교로 자리 잡은 Waldorf 학교와 본래 정규학교로 개교하여 대안적인 성격을 기초로 하고 있는 '실험학교' 등은 공교육의 보완으로서의 대안 교육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17]

---

15) 박정석, 전게서, p.9.
16) 오명희, 전게서, p.13.
17) 박정석, 전게서, p.1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안교육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외국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전 학교교육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생태주의를 바탕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특성이나 변화과정상 대안교육이 등장하는 양상이 다소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18]

우리나라 대안교육은 공교육 제도가 도입된 일제시대부터 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우리나라 대안교육은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일제의 황국신민화 교육에 대한 거부운동을 시작으로 해방 후 국립대학 안 반대 투쟁, 교원노동조합운동과 1980년대 후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참교육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또 공교육 제도 밖에서는 학교를 설립하여 공교육에 대한 대항교육을 직접 실천하여 일제 시대의 노동야학운동, 무교회주의 기독교 복음에 기초한 풀무학교, 원불교의 영산성지학교로 이어졌다.[19]

기본적인 철학배경은 외국의 경우와 유사할지라도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직접적인 등장 원인은 1970~80년대의 획일성과 비인간화로 특정 지어지는 학교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획일성과 비인간화된 학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싹트기 시작했다. 이 무렵 탈학교론이나 인본주의적인 학교교육 비판서들이 번역, 출간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안적인 학교의 모색보다는 종래의 학교교육의 개혁과 사회 개혁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초까지 종래의 학교교육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교사 집단에 의해 주도 되면서 제도권 안에 국한되긴 했지만 이념적으로는 대안적 이념을 모색하고 실천하려는 노력도 나타났다.

1990년대 초를 넘으면서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급진적인 사회운동이

18) 오명희, 전게서, p.14.
19) 상게서, p.2.

퇴조하면서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제도교육의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전망도 흐려지게 되었다.

제도 교육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모습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자발적 중퇴의 증가, 학교 폭력, 왕따 현상, 최근의 학교 붕괴 등과 같은 형태로 드러나면서 입시와 통제에 의한 기존의 교육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고 틈을 보이게 되면서 그 동안 꿈꾸어 온 교육에 대한 구상들과 의지의 축적들이 '대안교육' 내지 '새로운 학교'의 시도로서 교육주체들에 의해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 학교 밖 또는 주변에서 학교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소규모의 집단들이 청소년들에게 위안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한 체험활동이나 캠프는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을 얻으면서 확산되고, 매스컴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점차 알려졌다. 이후 대안학교 교육은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기존의 교육 방식의 경쟁적이고 비인간화를 가속시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또 자연 환경 파괴에 따른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후손들을 위한 교육방법의 모색으로, 인간성 회복과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육성 교육의 방안 모색으로 대안교육이 등장하였다.[20]

3.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유형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는 설립 목적, 이념적 기초가 다르며 추구하는 교육 목적과 구체적인 교육방법, 내용, 대상 학생들도 차이가 있다.

---

20) 오명희, 전게서, pp.14-5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기존의 학교와 조금만 색다른 형태의 교육을 시도하는 학교를 모두 대안학교라 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대안학교의 범주로 넣기에는 해석상의 무리가 있다고 본다.

대안학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이념 형태와 성격에 따라 이미 분류한 이종태[21]는 자유 학교학교형, 재 적응형, 생태학교형, 고유이념 추구형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서울 평화교육센터가 펴낸 「대안 학교의 모델과 실천」[22]에서는 운영방식과 교육내용, 교육대상을 함께 고려하여 정규 학교형, 계절 프로그램형, 방과 후 프로그램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대안학교를 제도교육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민들레 만들래 학교'의 김희동[23]은 제제도교육 틀 속, 제도교육 틀 곁, 제도교육 틀 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번 장에서는 이념 형태에 따라, 운영방식에 따라, 제도교육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각 각 분류하고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이념 형태에 따른 분류[24]

(1) 자유 학교형 대안학교

영국의 섬머힐 학교가 이러한 유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주된 동기는 종래의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아이들을 통제, 억압하며 교사(어른)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아이들의 선함과 무한한 가능성에 기초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니일이 말했듯이 '아이들을 학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이다.[25]

---

21) 이종태, 『대안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22)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서울 : 내일을 여는 책, 1996)
23) 김희동, 『우리가 꿈꾸는 학교,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보리 편집부 편, 1997).
24) 이종태, 전게서, p.23.

이러한 유형의 대안학교는 공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던 1970년대에 미국에서 붐을 이루었으며, 독일에서도 '자유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7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섬머힐을 모방한 자유학교 형태는 많은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1992년에 설립된 일본의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도 그 한 사례이다. 뚜렷하게 섬머힐을 닮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학교의 특징은 거의 모든 대안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섬머힐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학교들은 있으나, 아주 닮았다고 할 만한 학교는 없다고 본다. 비인가 형태로 운영되던 초기의 간디학교와 자유학교 물꼬가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26]

(2) 재적응형 대안학교

일반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청소년의 삶을 되살려 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로서, 영산 성지고등학교, 경주의 화랑고등학교, 합천의 원경고등학교, 청주의 양업고등학교, 광주의 동명고등학교, 두레자연고등학교들이 이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물론 70년대부터 확산된 미국의 자유학교들 가운데 많은 학교들도 비슷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일본의 '생활학교'도 이러한 유형의 하나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지고등학교는 주로 일반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헌신적인 교사들이 함께 어울려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3) 생태학교형 대안학교

다소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이 유형의 전형은 1982년에 설립된 영국 하트

25) 김은산, 『행복한 학교 서머힐』(양서원 , 1999), p.129.
26) 이상만, 『한국 대안학교의 실태 및 교육이념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2002), p.13.

랜드 지방의 '작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인도 태생의 평화운동가이자 생태주의자인 사티쉬 쿠마르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는 그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들을 교육내용으로 삼고, 마을의 다양한 생산자들이 교사로 봉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섬머힐이 주로 아이들의 자유스러움을 중시한다면, 이 학교는 생태와 노작,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결합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환경 위기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와 유사한 학교들이 영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에 개교한 간디청소년학교를 비롯해 푸름 꿈 고등학교, 실상사 작은학교, 변산 공동체학교들이 교육 이념이나 방식에서는 비교적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비록 형태나 운영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 학교가 지향하는 생태주의 이념과 의식주 해결과 연관된 노작 프로그램은 다른 많은 대안학교의 필수 과정으로 채택되고 있다.[27]

(4) 고유이념 추구형 대안학교

앞의 세 유형은 대안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목적이 비교적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매우 독특한 교육 이념과 방식을 바탕으로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 발도르프 학교(또는 슈타이너 학교)이다. 이 학교는 인지학이라는 독특한 철학을 체계화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을 기반으로 1919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6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학 전 교육부터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과정을 운영하며, 수업 방식이나 학급 운영 방식이 매우 특이하다.[28]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일체화된 교육을

27) 곽유정, 『대안학교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울산대대학교, 2000), p.
28) 상게서, p.15.

지향하는 홍성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역시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운영형태에 따라

서울평화교육센터의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에서는 대안학교를 정규학교형, 계절 프로그램형, 방과 후 프로그램형으로 분류하였다.[29]

(1) 정규학교형 대안학교

정규학교형은 기존의 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나, 기존의 학교와는 운영 방식이나 교육 내용 영산성지고등학교, 경남 산청의 간디학교, 거창고와 상설 학교 형태를 갖추었지만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변산의 공동체학교, 빙하 생활학교, 안산의 들꽃피는 학교, 경북 예천의 마을 학교)등이다. 이들은 학력 인정의 여부에 상관없이 학교 나름의 교육이념을 실천하는데 주력하여 교육과정이 매우 자유롭다. 진학이 필요한 경우는 검정고시를 보고 있다.

(2) 계절 프로그램형 대안학교

여름 혹은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현장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자연관찰, 공동체 활동, 각종 실험, 전통놀이, 생태활동, 견학, 답사, 예술 활동 등 학교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을 포함한 수업을 한다.

또, 하나의 문화 어린이 캠프는 성별, 나이 등에 의한 차별과 권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깨기 위한 실험의 하나로 캠프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생활한다.

---

29) 서울평화교육센터, 작은 학교 큰 교육 이야기 -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2004년 충북 영동에 학교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학교 물꼬는 글터, 그림터, 연극터 등의 방과 후 교실과 계절학교를 통해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대구의 민들레 학교, 경남 산청의 숲속마을 작은 학교, 서울 따로 또 같이 만드는 학교, 부산 창조학교 등이 있다.

(3) 방과 후 프로그램형 대안학교

학교에서는 하지 않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생들에게 특성이나 창의성을 개발시켜주기 위해 운영되는 형태이며, '방과 후 학교',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 '따로 또 같이 만드는 학교', '성남 창조학교' 등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상대로 하는 방과 후 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업부진과 문화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 교육적 차원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창조학교는 성남 지역의 주민생활협동조합의 어머니들이 학교운영, 교육내용 선정, 교사의 역할까지 모두 맡고 있다. 자연 관찰, 신문 사진으로 이야기 구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교실과 계절 캠프를 열고 있으며 비슷한 성격의 교육 현장으로 부산에도 창조학교가 있다. 따로 또 같이 학교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학교와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찍기, 비디오 제작, 도자기 교실, 연극 등의 다양한 문학적 체험을 시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수성을 길러준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30]

30) 김태정, "도시 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4), pp.14-5.

다. 제도교육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1) 제도교육의 틀 안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공사립 학교, 거창고등학교, 참교육운동, 열린 교육 등이 있다. 제도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방법적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학습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제도교육의 틀 속에 있는 틈새를 이용하여 교육실천을 하려고 한다. 이런 형은 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대안적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정규학교의 영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실천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는 교육과정과 수업방식의 변화를 통한 열린 교실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31]

(2) 제도교육 틀 곁 대안학교

제도교육 틀 곁 대안학교는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각종 학교인 학력인정 고등학교와 같은 형태로 제도교육 속에서 시행하기 힘든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방과 후나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시도한다. 제도교육을 불가피하게 수용하면서 대안교육의 새로운 시도들을 부분적으로 실천하고 제도교육을 보완한다. 정규학교 공간 밖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접할 수 없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며 나름대로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한다.[32]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각종학교인 학력인정 고등학교와 같은 형태, 풀무농업기술학교, 영산성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3) 제도교육의 틀 밖 대안학교

제도교육 틀 밖의 대안교육은 제도교육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31) 권진영, 『대안교육의 생태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00), p.24.
32) 상게서, p.26.

형태의 대안교육으로, 제도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하려고 한다. 학교 밖의 대안교육은 기존의 학교라는 공간 자체를 거부하는 흐름, 즉 제도권 밖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작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다. 이것은 기존 사회에 대한 변혁적 입장을 견지하며 제도권 학교의 공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한다.[33]

초기에 비인가 학교로 출발한 '간디학교'나 '자유학교 물꼬', '안산의 들꽃피는 학교', '숲 속 마을 작은 학교', '민들레학교', '변산 공동체학교'등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정학교(Home schooling)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의 특징은 첫째, 아이들의 감각을 길러주는 감각교육, 둘째 아이들을 충분히 놀게 하는 놀이교육, 셋째 끼리끼리 어울리게 하는 공동체 교육, 넷째 자유롭게 느낌과 생각을 드러내도록 부추겨 주는 표현교육 등을 추구한다. 실제 지식교육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임업시험장, 어업시험장, 실험실, 도서관, 자연박물관, 극장 등을 갖추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놀고 접하면서 자유롭게 학습하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34]

---

33) 유창완, 『대안교육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2003), p.23.

34) 심성보, "한국대안학교 운동의 현황과 과제", 6 no.2, (서울 : 교육사회학연구, 1991.10), p.180.

Ⅲ. 대안학교의 실천사례

국내의 대안학교의 실천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이념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다음과 같다고 보고 있다.[35]

첫째, 대안교육은 학습자를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스스로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본다. 학습자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학습내용과 학습방법의 변화를 수반한다. 대안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기가 무엇을 배워야 할 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이다.

둘째, 대안교육은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체 가치를 중시한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개인주의와 비인간화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간 상호간의 협력과 존중 및 평등을 강조한다.

셋째, 대안교육은 자연과 공존관계를 중요시하는 생명존중, 또는 생태주의 사상이다. 즉 자연 파괴적인 기계의 편리함보다는 인간 노동의 불편함을 자연과 공존하는 한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태도를 중시한다.

넷째, 대안교육은 노작교육을 중시한다. 일, 놀이, 공부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의 노동에 의해 만들고 조달하기도 한다. 이런 노작활동을 통해 자연과 친밀도를 높이고 사회적 협동을 체험하기도 한다.

다섯째, 대안교육은 작은 학교 지향이다. 대규모의 학교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억압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격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학교를 운영한다.

여섯째, 대안교육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은 학생들의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학교가 학부모의 참여

35) 오명희, 전게서, pp.8-9.

속에 운영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정치적 중심지이며,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삶의 체험장이자 학습자원이다.

제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대안학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어 어떤 분류도 실제를 제대로 담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제2장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그 유형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운영형태에 따라 분류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정규학교형 대안학교중 영산의 성지고등학교, 담양의 한빛고등학교, 경남 산청의 간디학교의 실천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교육부 인가 대안고등학교 현황

학교 이름	있는 곳	전화	홈페이지	개교년도
간디고등학교	경남 산청군 신안면	055-973-1049	gandhi.wo.to	1998
영산성지고등학교	전남 영광군 백수면	061-352-6351	yssj.hs.kr	1998
양업고등학교	충북 청원군 옥산면	041-260-5075	yangeob.hs.kr	1998
원경고등학교	경남 합천군 적중면	055-933-2019	wonkyung.com.ne.kr	1998
한빛고등학교	전남 담양군 대전면	061-383-8340	hanbitths.net	1998
화랑고등학교	경북 경주시 양북면	054-771-2355	hwarang.hs.kr	1998
동명고등학교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062-943-2855	kdm.hs.kr	1999
두레자연고등학교	경기 화성시 우정면	031-358-8776	doorae.hs.kr	1999
세인고등학교	전북 완주군 화산면	063-261-0077	seine.hs.kr	1999
푸른꿈고등학교	전북 무주군 안성면	063-323-2058	purunkum.hs.kr	1999
산마을고등학교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032-932-0191	igmhs.com.ne.kr	2000
지구촌고등학교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051-505-8656	glovillhigh.or.kr	2002
경기대명고등학교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031-416-3754	daemyoung.hs.kr	2002
한마음고등학교	충남 천안시 동면	041-567-5525	hanmaeum.hs.kr	2003
이우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31-728-3355	2woo.co.kr	2003
달구벌고등학교	대구시 동구 덕곡동	053-981-1318	dalgubul.hs.kr	2004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충남 서천군 서천읍	041-953-6292	vision.hskr	2004

<자료 : 교육부(2005)>

【표 2】 대안고등학교 교육의 특징[36]

설립 연도	학교명	교육의 특징
1998	양업고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더불어 사는 유대감과 소질과 특성, 정서 교육(천주교)
	성지고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교육(원불교)
	한빛고	일반 학생 대상으로 지덕체노를 겸비한 인간양성(기독교)
	경주화랑고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생명존중, 공동체적 가치 교육(원불교)
	간디학교	일반 학생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공동체적 인간교육 지향
	원경고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마음공부와 생명존중, 공동체적 가치교육(원불교)
1999	동명고	부적응 학생을 중심으로 체험위주의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 개발(기독교)
	두레자연고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행복한 사람되기, 더불어 사는 삶 교육(기독교)
	세인고	성적 불량 학생 대상으로 사랑과 봉사교육, 5차원 전면교육 (기독교)
	푸른꿈고	일반 학생 대상으로 환경, 생태교육, 조화와 협동교육 (기독교)
2000	국제복음고	일반 학생 대상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기독교)

36) 이종태, 『대안학교 대안교육』(서울 : 민들레, 2001), p.180.

1. 성지고등학교의 실천사례[37]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원불교에서 1974년 고등공민학교로 설립하여 1982년 학력인정학교로 인정을 받았고, 1996년 학교법인 영산학원으로 인가된 학교이다.

농촌지역의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촌의 학생들은 도시로 전학을 하거나 취업하게 되어 지원자수가 적어지는 반면 도시의 일반학교에서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탈된 학생들의 입학 희망자가 증가하여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현재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도입된 특성화 고등학교로 제정되어 보다 많은 중도 탈락 학생에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가. 학생 선발 및 전형방법

일반 전형은 중학교를 졸업한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자, 외국에서 9학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등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이다.

특별전형은 내신과 학생 및 학부모 면접, 글짓기,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나 공감등을 교사와 학부모 임원 공동으로 전형하여 협의를 거쳐 정원 25명을 선발한다. 특히 적성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치 못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모든 학생을 부처로 대하고, 사람마다 마음의 참된 바탕을 바르게 끄집어내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린교육을 실시하며, 공동체적 생활

37) http://yssj.hs.kr/

을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하나임을 알아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다.

성지고등학교는 건전한 시민을 만드는 일이다.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직접 간접의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고 좋은 이웃으로 살맛이 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자주적 판단 아래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도록 일깨우고 또한 공동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케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시켜 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목표는

첫째, 학생 개개인의 본래 마음 바탕을 회복하여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한다.

둘째, 믿음, 분발, 정성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의문을 갖고 사리를 깨치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셋째, 공동체 생활로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익심을 길러 민주 사회의 건강한 시민이 되게한다.

넷째, 심신을 단련하여 굳센 체력을 지닌 건강한 인간을 육성한다.

다섯째,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직접, 간접의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한다.

다.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새 학교문화 창조가 뿌리내리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 있게 운영하는 방안과 자율과 창의성을 기르는 제7차 교육과정운영 방안을 적극 받아들여, 보통교과 공통필수 과목과 특성화교과 계속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고 그 선택에 대한 학생 자율권을 크게 늘이며, 필수든 선

택이든, 수업을 수준과 주제와 시간에 따라 편성하여 학습자가 처지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무학년·무학급제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기회를 주어서, 학생 스스로가 학습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다.

영산성지고등학교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특성화 방안 중에서도 이 학교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무학년·무학급제에 바탕한 열린교육'이다.

무학년·무학급제와 열린교육(선택학습)은 학생들 개개인의 성향과 특성을 존중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이 학교에는 생명사랑, 해오름, 선명, 희망찬, 늘 푸른, 참마음, 시리우스, 미드미, 온누리의 9개 과가 있으며, 각 과에는 담임교사 및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과를 선택한 1, 2, 3학년이 함께 여러 학생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학생 활동의 경우에는 섬머힐 학교와 같이 매주 토요일 저녁 전교회의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결정하여 실행하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은 교육과정에 더욱 잘 나타나 있다.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선택의 폭을 넓혀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

무학급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년과 학급으로 하는 학급운영에서 '과'별 운영으로 바뀌도록 학기 시작 전에 '과'를 구성한다.

'과'의 뜻은 종래에 학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학급을 나누어 학년에 관계없이 취미나 적성에 따라 홈룸(Home Room)의 구실을 하는 '과'와 수업반을 나누어 교육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과별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현장체험학습, 노작체험 학습, 팀 프로젝트, 마음일기 쓰기와 같음 과목을 함께 한다.

【표 3】 영산성지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교과분류		교 과 목
국민공통 기본교과		국어, 도덕, 사회(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일반선택과목		국어생활, 인간사회와 환경, 생활과 과학, 정보사회와 컴퓨터, 체육과 건강, 음악과 생활, 한문, 생태와 환경, 진로직업
심화선택과목		독서, 윤리와 사상, 농업과학, 수학Ⅰ, Ⅱ, 영어Ⅰ, 영어 회화, 한국 근현대사, 법과 사회, 한국지리, 생물 Ⅰ, Ⅱ, 세계사, 문학, 사회문화, 지구과학, 정보컴퓨터, 음악실기
특성화 과목	학교 선택	생활요가, 마음일기, 산악등반
	학생 선택	무예, 공예, 도자기, 목공예, 탈춤, 음악 감상, 풍선아트, 골프, 탁구, 서예, 볼링, 짚풀 공예
재량활동		국어, 수학, 과학, 생활명상, 체육실기, 미술실기, 사물, 직업 멘토링

<영산성지고등학교 2006학년도 교육과정에서 재구성 : 영산성지고등학교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학교의 특징으로는 첫째,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여 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개발, 양성하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정규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문제 청소년들의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셋째, 소규모의 학급으로 학습 당 정원 20명 내외를 유지한다.

넷째, 전교생 및 전교직원이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교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전체회의를 통한 의사결정타협과 합의로 풀어가도록 한다.

다섯째, 세계화를 지향하는 전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자기작업장과 전통 가마를 설치 운영, 다기 류 등의 도자기를 직접 생산하다.

2. 한빛고등학교의 실천사례[38]

가. 학생 선발 및 전형방법

신입생 모집은 중학교 졸업자 및 2007학년도 졸업예정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이거나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일반계 특성화 고등학교과정 75명을 모집한다.

모집비율은 전남(60%), 전남 외(40%)—전남 지역의 응시자가 미달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 학생으로 충원할 수 있다.

2004년에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아 2006년 올해에는 3학년이 없고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했던 학생들이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이후 200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모집정원의 60%를 전남 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총점은 각각 100점으로 한다.

1차 서류전형 총점 산출 비율은 교과학습발달 영역 60%(60점)과 출결 영역 10%(10점), 행동특성 영역 10%(10점), 봉사활동 영역 10%(10점), 자기소개서 10%(10점)으로 하고, 2차 면접전형은 100%(100점)로 한다.

---

38) http://www.hanbitschool.net/

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한빛고등학교는 1998년 1월 13일 제 1회 신입생 100명을 선발하여 개교하였고, 학교법인 거이학원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사람 교육"을 목표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한빛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하나님 사랑·자연사랑·이웃 사랑"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다.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소질을 계발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필요한 지식을 생산·활용하며 진로 탐색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건전한 『한빛축제문화』의 창달 및 독서와 친교의 시간을 중시하여 머리에는 학문을, 가슴에는 덕성을, 손에는 노작을 키우고 익히며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전교생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협동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미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며 올바른 삶의 의미와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자아실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에 이바지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39]

총 204단위 중 보통 필수과목 70단위, 특성화 교과 36단위, 특별 활동 16단위, 기독교 12단위로 하고 나머지는 학교 선택과 학생 선택 과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교수·학습모형 개발-Pops Class(영어과), 패널 토의수업(철학과), 시사토론 수업(국사, 생태) 등 다양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 운영 중에 있다.

---

39) 한빛고등학교 입학안내자료

또한 수준별 이동 수업 운영으로 공통영어와 공통수학을 능력별·수준별로 4개 반(A, B, C, D반)으로 나누어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반으로 이동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으로 정규 교과와 특별활동 시간, 인터넷 교실 및 자격증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급 정원 25명으로 개개인의 상담교육 및 개별화 교육으로 인성과 학업 성취의 효율화 기대, 교육부 지정으로 1999년부터 자율 학교 시범운용으로 탄력적 교과 과정 운영, 다양한 특성화 교과 및 체험활동으로 배움이 신나는 학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컴퓨터실, 과학실, 유도실, 학생회실, 재봉실, 진로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교내에 문화체육관이 있어 주민들과 더불어 문화 활동 및 체육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3. 간디학교의 실천사례[40]

가. 학생 선발 및 전형방법

모집대상은 일반전형은 중1 및 고1 일 될 나이의 남년 청소년 각 20명 이하이고, 특별전형은 중2, 중3, 고1 이 될 나이의 남녀 청소년 약간 명이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지만 특이한 점은 전형방법이 중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30%, 면접 70%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특히 면접은 전형위원 7명이 질문을 하고 학생 면접과 함께 학부모와도 면담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 입할 할 뜻을 가진 학생들을 4박 5일 정도의 예비학교에 참여해야 하는데 수업내용은 의식주 교과(옷 만들기, 집짓기, 음식 만들기 등)와 감성교과(음악, 미술, 풍물 등)로 구성된다.

---

40) http://gandhischool.net/

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간디학교는 기존의 학교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원칙들이 실패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과 자발성은 서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이루어지고 배움과 가르침이 이러한 철학적 기초 위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골고루 성숙되고 조화된 인간, 이웃과 협동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 자연을 아끼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몸과 마음과 지성을 골고루 발달시켜 자아를 완성하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간디학교는 중·고등 과정이나 학년이 나뉘지 않는 통합학교(Comprehensive school)이다.

이 통합학교는 우리에게는 낯선 학제이지만 영국의 섬머힐과 세계의 수많은 대안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제이며, 우리 조상들이 서당에서 가르치던 교육 방식이다.

통합 학교인 간디학교에서 학생들은 연령이나 학년에 구분되어 수업을 받지 않고 대신 개인의 능력에 따른 단계별 수업을 하거나 관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다.

수업 진행 면에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토론을 매우 존중하고 있다. 교사들의 일방적인 지도에 의한 수업이 아니라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스스로 도출,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에 필요한 교재가 자연히 다양하고, 제도권의 교과서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교과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장소가 제한되지 않은 열린교육으로 학교의 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가 학습의 도장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배움터가 있다면 국내의 어디라도 옮겨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 학기에 한번(한번에 3~5일) 이동 수업 기간을 마련한다.

또한 담임교사, 학부모와 상의하여 개별 학생은 자신의 관심과 장래 희망에 따라 각각 다른 시간표를 짤 수 있다.[41]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강조, 학생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장래 희망을 고려하여 수업 시간표를 만들어 학습의 선택과 단계별 수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인문계 이상의 높은 수준의 지식 수업이 행해지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감성 교과들, 가치관 교육, 인간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길러 주는 생태와 노작, 공동체 생활을 매우 중시하여 그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간디학교에서는 교과를 지식교과, 감성교과 자립교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식교과는 대개 일반 고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로, 감성교과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발달 시킬 수 있는 과목들로, 자립교과는 인간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목들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자립교과는 간디학교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1) 곽유정, 전게서, p.23.

【표 4】 간디 학교 교육과정

교과분류	교 과 목
지식 교과	윤리, 국어, 영어, 한문, 국사, 정치, 경제, 공통사회, 화학, 공통수학, 수학
감성 교과	음악, 미술, 우리 가락 우리 춤, 표현예술, 디자인, 공예
자립 교과	텃밭 가꾸기, 음식 만들기, 집짓기, 옷 만들기, 생명농업, 생태건축, 편집출판, 정보와 매체

<출처 : 간디학교(2001), 간디학교 교육과정에서 재구성>

1년에 3회 정도 있는 체험 이동학습 때는 각 학년마다 나름대로의 일정을 잡아 연극도 보고 직접 배우도 만나는 시간을 갖는가 하면 대학이나 방송국들을 견학하기도 하고 우포늪에 가서 생태조사를 하기도 한다. 또는 양로원이나 장애자 시설을 찾아 모든 시간을 봉사활동으로 보내기도 한다.

1년에 한번은 모든 선생님과 전교생이 지리산 종주를 하며, 매월마다 생일축하 파티, 체육대회, 단오제 같은 행사들이 연달아 있는데 모두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기획하고 발표하고 참여하면서 꾸려나가고 선생님들은 곁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도이다. 방학중에는 선생님과 함께 해외로 어학, 문화연수를 하고 있다.

풍물반, 제빵반, 애니메이션 감상부, 역사 사랑회, 영화 감상반, 일어 동아리, 연극반, 플룻반, 나들이반, Rock Group 등 각종의 동아리들이 있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바쁘기도 하고 각자 한두 개씩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생활은 일주일마다 교사와 학생이 모여 <식구총회>를 개최하는데

진행은 학생이 맡아서 하며 교사도 학생과 같은 자격으로 참석하여 상벌을 논한다. <식구총회>는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법을 배우는 일종의 사회 공부로 교사와 학생이 공동체 식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Ⅳ. 대안학교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대안학교의 문제점

이상에서 성지고등학교, 한빛고등학교, 간디학교의 대안교육 실천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대안교육이 진정 공교육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본문의 사례분석에 의하면 지금의 대안학교들이 편성·운영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 발전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선례나 경험의 축적 없이 실험적으로 시도되는 데서 오는 미완성과 세련되지 못함은 대부분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며, 새로운 시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문성 부족도 큰 문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새로운 교육 이념을 실현할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수방법에 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학생 참여에 의한 교육과정 구성 시도는 극히 일부에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학생들의 특성이나 잠재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겠지만, 대체로는 교사들의 판단만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의 질 문제이다.

종래 틀에 박힌 학교 교육과정에 비해 참신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음은 분명하나 과연 이러한 교육과정이 당초 설정한 교육이념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또 효율적으로 교육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운영의 측면에서 당초의 의욕에 걸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신 있게 긍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안학교들이 국가 교육과정의 엄격한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교과목의 명칭이나 내용, 시수의 편성, 평가, 담당 교사의 임용 등이 일반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됨으로써 말 그대로의 대안학교를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자는 대안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대안 교육이 좀 더 진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안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현행 대안학교 활성화를 위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가. 사회적 인식의 문제

사회적으로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지 않다. 우선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일반학교에서의 문제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대안학교 학생들이 소위 일반학교에서 말하는 '문제아'가 대부분이고, 또 학교생활에 그리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이다. 특히 이 같은 부정적 모습이 부각되게 된 이유는 매스컴에 있다고 하겠다. 즉 매스컴이 대안교육을 지나치게 극적인 상황들로 묘사를 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안학교'는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소질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학교라기보다는 '문제아'들이 다니는, 그래서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학교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대안학교 학생들이 갖는 모습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편견과 선입견의 결과라 하겠다.

즉, 학생들의 다양성과 내면적 모습 등은 간과하면서, 이와 다른 측면 즉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부적응 학생', '문제아 학생'을 선도하고 제도하는 재생기관으로서의 잘못된 편견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42]

사실 대안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많은 학부모들 중에서도 일부는 자

42) 엄재춘, 『대안학교의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5), p.136.

신의 자녀들이 이런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 즉 불량학생들의 모임 터, 세련되지 못한 교육과정, 전문적이지 않은 교사진, 문제 학생들로부터의 일탈행위 학습화라는 잘못된 인식에 있는 것이다.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관련 기관에서의 인식 또한 일반학교와 차별화하고 있다. 재정적 보조에 대한 차별과 대안학교 교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구심 등이 그 예라 하겠다. 사실 대안학교 교사들에게 있어 가장 힘든 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이다. 이것은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신성한 헌신과 사명감을 짓밟는 것이라 하겠다.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시기는 대체로 9월에서 10월 즈음으로 일반학교들보다 빠른 편이다. 시험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심사, 합숙 면접 같이 여러 과정을 거쳐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또 신청자들이 모집정원을 훨씬 넘는 경우가 많아 떨어졌을 경우 일반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입학이 허용되어야 하겠지만, 시설의 수용능력이나 구성원들 사이에 충분히 교류가 이루어질 때 참다운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자가 정원을 넘을 경우 대안학교들은 나름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한다.[43]

대안학교는 학교당 최소 1학급 20명으로 편성하되 완성년도의 총 학생 정원이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의 적성 등을 우선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 방법상 특례를 적용하되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일반 공교육기관처럼 거주지에 의해 정해진 학군 내에서 내신 성적과 필기시험에 의해서 전형되는 것과는 차별되어 있다. 주로 학교교육 방침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 정도, 학생의 공동체 생활 적응 가능성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대개는 학업 성적을

43) 이종태, 『대안학교 대안교육』, p.181.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교 학력 청소년 수에 비교할 때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안학교 자체가 작은 학급을 추구하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학교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또 대안학교가 학생들의 생활권과 너무 멀리 있는 것 또한 학생들의 대안학교 입학을 어렵게 한다.

나.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여건

대안학교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케 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보통의 인문계 학교와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크게 다르다.

다만 이들 학교 역시 정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비록 대안학교를 위한 교육과정이 따로 고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대안학교는 3년간 총 204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이수과목은 교과 188단위, 특별활동 16단위이고, 1학년은 공통필수과목 (70단위) 중심으로 운영하고, 2-3학년은 특성에 따른 전문, 실기 교과와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 고교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수업일수 30일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차이이다.[44]

공통필수과목정도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나머지는 학교 나름의 새로운 과목을 개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새로 개발되는 과목을 가운데에는 '특성화 교과'라고 하여 일반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산악등반이나 마음공부와 같은 심신 훈련을 위한 것이나 텃밭 가꾸기, 동물 기르기 같은 노작 또는 체험 중심의 과목이 있고, 당구나 바둑

44) 이현정, 『대안학교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2002), p.74.

같이 일반학교에서는 방과후 특기적성에 해당하는 것들도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별로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특성화 교과를 개발하고 거기에 적합한 교사나 강사를 확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방과후의 특별활동이 활발한 편이나, 학교 시설이 열악하거나 교사와 학생수의 절대수가 많지 않아 다양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45]

또한 주지 과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특성이나 특성화교과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기도 하고, 무학년제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보통 교과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특성화 교과를 현행 고등학교의 '단위제'에 맞게 편성해야 한다든가, 대학입시의 내신평가를 대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석차를 기록해야 하는 일 등이 문제점이다.[46]

가상공간을 활용한 교육이라면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를 운영하자면 공간 확보와 유지, 교사의 생계유지, 양질의 교육을 위한 시설과 기자재의 확보를 위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 더구나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정규학교인 대안학교들은 국가가 정한 시설과 공간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비록 고교설립준칙주의에 의해 일반학교에 비해 기준이 크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영세한 규모의 학교들로서는 그것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현재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폐교된 학교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 외각 지역이나 농촌 또는 산간에 위치하고 있다. 폐교된 학교를 구입하여 교실로 사용하더라도 기숙사와 특별실은 새로 지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특별지원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기숙사 건립에 다소

45) 이상만, 전게서, p.35.
46) 이현정, 전게서, p.74.

나마 도움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지원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첨단 기자재나 다양한 시설의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안학교가 도시의 문제를 피해 농촌으로 들어간 이유는 '자연학교'와 대안학교가 갖는 교육이념 또는 교육방법상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설사 충분한 비용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매년 도시지역의 대안학교 설립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해에 학교를 이탈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바로 도시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 속에서 그들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교육을 시켜줄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통상의 문제로 체험활동 및 이동학습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학교 외부와의 다양한 관계형성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47]

교육법은 학교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지원이 저조하고 학생들로부터 수수한 교육비는 대부분 학교운영비로 쓰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학생 수는 적고 이들에게 다양한 교과를 교육하는 교원의 수는 많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자체를 감당하는 것 자체도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중도탈락자예방종합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안학교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운바 있음에도 현재 학교법인이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도탈락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지내다가 범죄 청소년이 되기라도 한다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에 막대한 예산을 세워야 하고 특히 소년원에 수용하면서 보호, 교육시키면 대안학교보다 수배의 예산을 지출

47) 엄재춘, 전게서, pp.46-7.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이 검토가 절실하다.[48]

대안학교가 기존 공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고 기득권에 배치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재정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 교사진의 충원과 운영

대안학교가 철저히 학생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는 해도, 독특한 교육이념과 방법을 지향하는 대안교육의 성공여부는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자질과 열의를 갖춘 유능한 교사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교사들의 투철한 교육 이념과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그 학교가 대안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안학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교육법 시행령상 교원 배치기준에 다르고 특성화교과 담당 교원은 산업체 근무 유경험자를 산학겸임 교사, 강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저 생활을 하기 어려운 낮은 처우 때문에 평생직장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하기란 어렵다. 박봉 교사에게 성직자와 같은 희생정신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안학교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농촌, 산간에 위치한 학교에서 교사가 생활하는 것은 독신에게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이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학생들과 24시간 함께 지내야 하는 교사들은 사생활이 거의 있을 수 없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힘든 형편이다.

현재 대안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교사교육을 받은 교원의 수도 절대 부족하다.

---

48) 이웅교, 『청소년 대안교육 정책의 방향 모색』 (청소년 복지연구, 1999), p.69.

따라서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대안학교 교사가 되더라도, 일반 공교육기관을 거부한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얼마나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도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러한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수는 없다. 학교마다 필요한 교사를 대안교육에 관한 훈련 여부와 상관없이 선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선발 후에도 특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2. 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

가. 대안학교 교육과정 제도를 위한 노력

대안학교에서는 획일적이고, 이론적 지식위주인 공교육의 내용을 일상생활과의 연관성, 학습자의 흥미도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각 교과의 내용을 선별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의 양을 줄이고 감성교육과 특별활동 교육을 많이 하여 다양하고 실제 생활과 관련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 선별과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각 학교의 설립자의 의지나 교육 목표에 의해 종교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는 철학적인 면의 접근과 인격수양,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므로 권장할 만하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특정 종료가 아닌 대다수의 종교를 철학적인 면으로 접근시켜 교육함이 바람직하며 학생들에게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대안교육의 개별화 교육에 맞는 수준별 학습의 교재가 필요하다. 대안학교의 교육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존의 검인정교과서에서 탈피하여 교사들의

연구 모임이나 교사 스스로 제작한 인쇄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잃게 하지 않으면서 대안교육 이념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으로 본다. 그러나 각 교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각 대안학교 공동협의회를 통한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대안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이다. 공교육에서도 다양한 수업방식을 시도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일제·강의식 수업이다.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선택, 내용선정, 수업방법 등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를 잘 파악하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아직은 교사 주도에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학습자인 학생들의 주도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49]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들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이 다양한 만큼 그 내용이나 형식에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대안교육이 종래 학교교육의 기본 가정들이 안고 있는 한계의 극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기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것을 제시하는 형식은 어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추구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은 내용과 형식에서의 다양성과 가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 갖는 이러한 성격은 대안학교가 정규, 인가형 학교라고 해서 그 교육과정을 정형화하려는 시도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자칫 대안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

---

49) 오명희, 전게서, p.35.

다. 따라서 그 작업은 정규 학교로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기준과 대안교육의 내용적 역동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50]

대안학교 교과과정 중 가장 큰 어려움은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교과목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보통 교과목은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과목으로 구성되지만 특성화 교육 교과는 전적으로 대안학교가 개발하여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교육의 공통적 학습방법은 모둠을 통한 자치 활동 중심이며 일과 놀이와 공부가 통합되는 교육방식을 추구하며 이러한 교육방법도 구체적인 설계 모형이 있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특성, 교수환경 등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등이 치밀하게 설계될 때 교육의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경험의 축적과 전문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로서, 목표에 부합되는 교과 내용과 이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핵심이 된다.

기존의 일반계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지만,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의 개발은 아직까지 거의 전적으로 개별학교의 교사들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이들이 기준이나 참고로 삼을 만한 지침도 변변치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

50) 곽병선, 『대안적 학교교육이란』(한국교육개발원, 1995), p.66.

라도 대안학교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당사자격인 학교들 역시 개별 또는 학교가 연대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목표에 부합되면서도 동시에 학생들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학생들은 학교의 분위기나 운영 방식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지적 수준이나 안정성에서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51]

대안학교의 교과과정은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의 법적 지위를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특성화 교과목을 3년간 82시간 이수해야 하므로 학력 인정된 대안학교는 다음 표 <3>과 같이 다섯 영역으로 나눈다.

각 영역마다 다양한 과목을 예시하되 각 과목은 중간 수준의 포괄성을 지진 개념으로 하여 대안학교마다 교육이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게 한다.

51) 교육부, 『대안학교의 교육 과정 및 교사 양성방안 보고서』, 1999.

【표 5】 대안교육 과정 교과목 편성 예시

교과과정 영역	영역	교과 과목 내용	과목 예시 내용
생활 영역	몸	몸과 환경(생태)을 이해하고 건강과 노동을 통해 자아발견과 의식주 해결능력 과목	생명과 자연, 생활체육(배드민턴, 수영, 볼링 등), 음식, 옷 만들기, 생태농업 등
영성 영역	인성	개인의 심성과 몸과 마음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과목들	심신수련(명상, 요가, 기체조), 기예(검도, 태견), 종교, 철학, 체험여행(답사, 견학 등)
예술 영역	놀이	일상 생활 속에서 건정한 취미활동 능력과 예술 감각을 풍부하게 하는 과목	공예, 전통놀이, 전통음악, 악기, 민요, 합창, 만화, 사진디자인, 서예 등
사회 영역	인간 관계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이해하고 원활한 관계 형성 과목	대화법, 상담, 공동체 이해, 성과 문화, 대중매체 이해, 국제 이해 등
교양 영역	심화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 시대변화 인식 과목	미래학, 정보학, 과학사, 문화사, 예술사, 과학윤리 등

위의 영역 중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검증이수영역과 영역별 이수과목 수를 정하도록 한다. 학교 교육 특성에 따라 학생과 과목의 특성을 고려 집중이수제를 통한 연중 과목별 로 학기제도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으로 대안교육 전문가와 관련학교 관계자로 구성되는 대안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여 대안교육 교과목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위의 제안된 체계에 따라 교과목을 진행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며 이를 각 체계에 따라 변용하고 과목화하여 해당 체계에 준하는 커리큘럼으로 발전해 가야할 것이다.

나. 대안학교를 이해하는 교사의 양성과 교사상 정립

대안학교의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다.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활동인 대안학교 학습 및 생활의 견인차가 교사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어떤 대안 학교에서든 교사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흔히 말하는 대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논문의 주제인 대안학교처럼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그 틀이나 바탕이 기존과 다르고 새로우며 나아가서 고정되고 경직되지 않은 학교일 경우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안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이해하고 있는 철학 있는 교사를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대안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52]

대안학교 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점은 일단 대안학교가 제도 학교에 비해 그 수가 아주 적고, 교육내용이나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데서 비롯된다.

대부분 겪는 문제인 열악한 보수체계나 과중한 업무 부담 같은 일반적인 어려움들은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바로 위에서 지적한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중압감이다. 아직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느 사회든 대안학교 교사를 위한 독립된 교육기관이나 과정은 없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교사들이 일반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학교 교육에 집중된 교사교육을 받거나 제도교육의 경험을

52) 박정석, 전게서, p.51.

가진 채 대안학교에 오게 된다. 이들의 의욕과 교육적 열정에 비해 다른 교육적 준비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런 만큼 이들이 겪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기존 제도교육에 대한 실망감에서 새로운 교육, 다른 교육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안학교를 찾는 교사들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내건 교육철학, 교육목표는 거의 문명비판이나 대안문명론에 가깝도록 크고 원론적인 것들이 많다.

이를 어떻게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과정, 학습방법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과제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와 높은 이상과 열정을 가졌으되 이를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부재에서 오는 시행착오 일 것이다.

대안학교라는 새롭고 다른 학교와 교육의 틀에서 교사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열린 제도, 열린 형식, 열린 학습일수록 그 열린 공간만큼 새롭고 다른 교육을 학생들과 함께 해 갈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며, 교사의 이 같은 노력이 교육의 대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안학교 교사라고 해서 전혀 다르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교사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나름대로 새로운 교육, 다른 교육에 걸 맞는 내용을 찾아나가야 한다. 여기에 대안학교 교사의 어려움이 있다.

대안학교 교사도 교사인 만큼 오늘날 교육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교사상을 유지하면서 대안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걸 맞는 철학과 실천의지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대안학교의 성격과 교육철학과 관련해서는 공통된 어떤 지향점과 역량, 실천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폰 헨티히[53]에 따르면 대안학교 교사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상호이해' 그리고 '책임성'에 바탕을 두고 학교를 개선해 나가고 기존 교육 자체를 변화시키며 이런 모든 것을 위한 교육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 삶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학교는 학생들에게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삶과 배움의 공간이다. 또한 대안학교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개성과 특성을 꽃피우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교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실천해야 한다.

대안학교는 그 자체가 공동체적인 생활공간이다. 여기서 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홀로 선 주체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대안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만 전인교육을 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머리와 가슴과 손발을 모두 움직여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안학교 교사는 지금까지 기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장애와 제한 때문에 제대로 못했던 학교의 긍정적인 고유기능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 이를테면 다른 삶터가 아닌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전수하되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와 삶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서 학문과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학교의 교사상을 김희동은 한 마디로 '실력, 실천력, 영성을 갖춘 교사'(『민들레』 16호: 82-85)라고 표현한다.

대안학교의 교사는 앞서 말한 대로 전통적인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는 몫에다 오늘날 교육에 주어진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몫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문성을 비롯한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실력이다. 실력은 그렇다고 인지적이고 학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53) 폰 헨티히 (von Hentig 1993: 214-232)

'완성도 높은 전문가 정신, 철저하고 끈질긴 책임의식, 삶의 실력자가 되기 위한 자기 헌신, 자신만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면의 정직한 투쟁, 십년 이십년 일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장인정신' 같은 것을 말한다.

실천력은 교사를 진실로 교사답게 하는 힘이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할 줄 모르고, 기능은 있는데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그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 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선택한 수행 훈련과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상생체(相生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공동체까지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유기적인 네트워크 같은 것이다. 개별체들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하되 함께 어우러져 참답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삶의 과정 자체를 안은 말이다.

마지막으로 '영성(靈性)'은 앞의 실력과 실천력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힘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자신 속에 깃든 선함'에 대한 깨달음이며, 교사 자신이 스스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삶을 희망으로 보며 진리를 즐기며 실천할 정도의 안목과 품성을 지닐 때 우러나는 것이다.[54]

획일적인 공교육 체재 내의 제도화된 학교문화 안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교육을 지향만 하면 대안교육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제도 내에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특성화 학교에서는 그 목표에 걸 맞는 내용, 그리고 이를 전달, 체계화할 교사들로 대안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는 대안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할 교사들의 교육 및 임용과정의 체계화다.

하지만 기존의 교사양성 및 교사임용 체계를 답습해서는 대안학교의 특

54) 이종태, 『대안학교 대안교육』, p.185.

성을 살리고 그 뜻을 살리는 교육을 실천할 교사들을 길러낼 수도 또한 수급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안학교 교사의 양성과 임용은 기존의 교사양성 및 임용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적인 체제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성은 우선 그 형식에서부터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사교육의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체제로 대안학교 교사양성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장기적으로는 이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부터 기관, 제도적 측면의 보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전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 임용 및 수급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첫째, 대안학교 교사들의 경우 교사 자격증 문제를 대안적, 또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 인정 교사자격증 소지자만이 정식교사가 될 수 있는 독점적인 교권이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선진 산업국가의 추세로 보거나 대안교육 자체의 뜻으로 볼 때 이런 독점의 벽을 허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삶의 교육, 전인교육, 실천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 자격증 자체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일반 학교와는 구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일반 교과목 교사들에게는 자격증을 요구하더라도 '특성화 교과' 관련 교사들은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자체 내의 규정, 또는 협의회 차원의 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좋겠다.

둘째, 대안학교 교사임용은 지금까지처럼 설립과정에 뜻을 같이 하는 내부집단 속에서, 아니면 기껏해야 광고를 통한 공채 방식으로 해서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이렇게 되면 그 도입단계가 초기에는 순수한 열정과 뜻이라는 가장 필요한 덕성만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향후 확산과

심화를 통한 정착단계에서는 곧 잠재적 인력의 양적, 질적 고갈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대안학교 교사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인력풀(pool)을 만들고 여기서 임용, 충원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역시 협의회 차원에서 총괄하여 기본 교육과정을 통해 기본 인력을 양적, 질적으로 확보하고 각 학교마다 특성, 개성에 맞는 교사들의 임용과정, 수급정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따로 또 같이'하는 교사교육 및 임용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 임용 뿐 아니라 수습, 교사 재교육과 관련된 종합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본적인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임용하였다고 해도 각 학교 자체로 충분한 재교육, 연수기회를 줄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인적, 물적인 낭비와 시행착오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종합적인 기본교육, 합동 인력 풀(pool)에 의한 임용말고도 교육기간 중의 실습, 또는 임용 후의 수습기간 동안 여러 학교를 돌아가며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55]

그밖에도 정기적인 워크샵이나 공동연수 등을 통한 활발한 경험교류 및 상호교육의 체제를 협의회 차원에서 정례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안학교 교사 양성 및 임용과 관련된 당면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안학교에서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사들이 필요할뿐더러 또 다양한 교사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사자격의 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당장 대안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단기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예컨대 대안학교 정규교사의 자격은 일단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그 밖의 다양한 자격의

55) 박정석, 전게서, pp.63-4.

교사들을 시간강사, 계약제 교사, 특별교사 등으로 포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특히 특성화 교과영역에 이러한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장기적인 대안학교 교사양성 체계구축 이전이라도 일단 현행 대안학교에 교사가 되려는 예비교사나 현직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립이 시급하다. 비록 학교마다 다양한 특성은 있되 기본적인 지향을 같이하는 학교들이므로 말 그대로 '따라 또 같이' 하는 교육과정이 시급히 필요하며 또 현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식은 계절제(방학중), 또는 3~6개월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협의체 수준의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육전문가들과 이에 관심 및 경험이 있는 대안학교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대안학교 교사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소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상, 이론, 사례 등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현장 및 청소년의 생활세계 체험, 그리고 기존 대안학교 참여관찰 및 실습 등 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

셋째, 대안학교 교사 임용과 관련해서도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식을 존중하고 하도록 하되 그 기본적인 바탕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테면 위의 교사교육, 연수과정 이수를 기본요건으로 하는 등 말이다. 그밖에도 학교끼리 연수 기회 및 재충전의 기회, 경험확대를 위해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교환 근무하는 형태의 틀도 필요하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당국의 인준을 받아 나름대로의 대안학교 교사 양성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넷째,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대안학교 개교당시 가졌던 교육 철학과 교육구상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대안교육이 정치나 경제논리에 의해 취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사는 대한 유연한 사고를 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인간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런 관

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사들은 실상 제도적 산물이므로 이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교사상이 더욱 필요하다. 교사는 완전하고 학생은 불완전하여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기만 한다는 이분법적 사제관은 변화되어야 한다. 규격화된 교육관을 가진 교사들이 이전의 낡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여 들면 대안교육은 정착 될 수 없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 다르다는 차이의 철학을 수직함으로써 학생을 보다 전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중단할 수 없기에 서로 배운다는 쌍방향적 교육관을 가지고 끈기 있는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하고 그 역량의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사가 일방적 선도자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공정하고 친절하며 배려가 깊은 교사상을 내면화하여 참교육 의지를 고양시켜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 대안학교 실천이 철학이 있고 의식 있는 교육자에게 있으므로 대안학교 교사들의 변함없는 자기혁신과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56]

다. 교육여건

대안교육의 이념인 자유와 자율, 공동체성 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의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행정기관의 간섭이 없어야만 대안교육의 이념이나 목표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학교가 그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일반 학교 위주로 되어 있는 획일적이고 통제 중심의 각종제도와

56) 곽유정, 전게서, p.63.

정책, 행정 관행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 설립기준이나 교육 과정 가운데 대안학교 교과 부분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완화 또는 자율화되었지만, 여전히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대안적 교육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이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율학교 제도를 내용적으로 좀더 강화하여 적어도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57]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합리적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안학교에 대한 교사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지원 수준은 시·도교육청에 때라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오히려 학교 재원의 조달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교육재정이 긴축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안학교들이 지니는 학교교육 개선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가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가 학교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정규 학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으며, 학력인정 학교로 인정받아 그나마 교사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성화 교과목 교사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교사, 기숙사 등 건설비에 대해선 사실 학교 자체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이는 규모가 작은 학교가 갖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대안학교 중에서도 비정규학교에는 적어도 교사의 최저 생계비와 정상적인 교육을 가능케 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직접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분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57) 박정석, 전게서, p.74.

대안학교의 질적 확산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학교는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경시되었던 다양한 현장체험 실험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연구비 등 실험, 실습비를 시범적으로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새로운 대안교육을 시도하는데 꼭 필요한 설비와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 대안학교의 재원을 다변화 시켜야 한다. 학생의 등록금,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각종 후원금에 의존하는 교육 재정에서 정부와 보조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권의 공교육 기관과 동일하게 재정적 지원과 좀 더 과감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58]

58) 박정연, 『대안학교은 대안인가』 (범우출판사, 2001), p.53.

V. 결 론

상술한 내용과 같이 대안학교들은 그 역사적 배경과 설립목적이 저마다 다르며, 철학 이념적 기초,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구체적인 교육방식도 조금씩 다르지만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며 실천하는 학교로서의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등장배경, 교육이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학교의 등장배경은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공교육제도가 본래 교육의 목적을 상실하고 기존학교 교육의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그에 대한 대안적으로 여러 실험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70-1980년대에 획일적이고 비인간화되고 있는 학교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어, 1990년대에 인간성 회복과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육성의 방안으로 대안학교가 탄생되고 1998년부터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안학교인 성지고등학교, 한빛고등학교, 간디학교의 교육이념, 교육과정, 전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분석하여 실천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그 실천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에 합당한 활성화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문의 실천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대안학교들은 다음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안학교들이 추구하는 교육이념 및 인간상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하고 공동체의식을 지닌 인간, 도덕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다.

둘째, 교육목표는 전인교육과 사회성교육, 생명과 생태를 중시하는 친자연적 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교육내용은 실생활에 의한 살아있는 교육을 추구하며 학습활동을 통해 지식보다는 사회성 교육에 비중을 두며 자연친화적 교육 환경 속에서 일과 공부를 함께하는 감성교육과 노작교육을 지향한다.

넷째, 교육방법은 자신의 관심과 장래희망에 따른 개별적 학습선택과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맞는 수업과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방법을 지향한다.

다섯째, 작은 학교를 지향하며 생태적 삶의 가치를 존중하며 전교생이 교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러한 대안학교는 조화롭고 균형있는 전인적 인간형성을 위해 독특한 대안적인 내용과 방법들을 개발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안학교들이 실천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교육이념을 실험으로 그치기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환경은 열악하다.

외국의 대안학교들은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을 해온 반면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들은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즉 종교단체나 뜻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의 발전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발전적이고 대안학교의 이념에 부합하려면 보다 많은 점이 개선되어 대안학교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안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대안교육을 이해하는 교사의 양성과 새로운 교사상 정립, 정부의 대안학교 규제 개혁을 통한 행정적인 지원, 대안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설계모형 추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안학교들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관계자나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교과목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전문적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교과목의 전문성이 떨어짐에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안학교들이 스스로 연계하여 각 학교마다의 체험을 바탕으로 의논하여 교과목을 개발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도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등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교원문제에 있어서 평생직장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며, 대안학교 설립자와 현장에서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확고한 철학과 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대안학교에 대한 많은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정규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때 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열악한 비정규 대안학교의 규모를 늘리고 보다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국가의 행정적 지원으로 필요한 것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졸업학력인정이다.

결국 대안교육 교육실천가의 의지,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제도개혁, 교사의 자발적 실천의지가 병행될 때 우리나라 대안교육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도교육으로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으로 전인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정규학교형 대안학교가 많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급체계와 대안학교들의 어려운 여건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획일적인 것을 거부하고 다양한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오늘날의 교육은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 나라의 모든 학생들을 포용해 나갈 수 있는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곽유정(2000), 『대안학교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진영(2000), 『대안교육의 생태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정(2004), 『도시 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병현(2001), 『한국대안학교의 사회적 교육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석(2002), 『한국 대안학교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태전(2002), 『간디학교의 대안 찾기』,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은희(1999),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실태 및 특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엄재춘(2005), 『대안학교의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명희(2001), 『우리나라 대안교육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창완(2003), 『대안교육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만(2002), 『한국 대안학교의 실태 및 교육이념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숙(2001),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성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웅교, 『청소년 대안교육 정책의 방향 모색』, 청소년 복지연구, 1999.

이현정(2002), 『대안학교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정유성 외(1999),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사양성 방안』,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rr, R. D.(1981) "Alternative for the Eighties : A Second Decade of Development", Phi Delta Kappan. Vol.62,No.8.
Cooper, B. S.(1994). "Alternative Schools and Program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Kidlington :Elsevier Science Ltd.
Fantini, M. D.(1976).Alternative Education, New York : Doubleday.
Smith, V. H.(1974). Alternative SchoolsThe Development of Options in Public Education, Lincoln : Professional Education Publication, Inc.

2.대정부보고서

교육부(1999), 대안학교의 교육 과정 및 교사 양성방안 보고서.
간디고등학교(2000), 2000년 자율학교 시범 운영 보고서.
한빛고등학교 입학안내자료.

3. 단행본

곽병선, 『대안적 학교교육이란』, 한국교육개발원, 1995.
김은산, 『행복한 학교 서머힐』, 양서원 , 1999.
김희동, 『우리가 꿈꾸는 학교,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보리 편집부 편, 1997.
박정연, 『대안학교은 대안인가』, 범우출판사, 2001.
서울평화교육센터, 작은 학교 큰 교육 이야기 -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송순재, 『학교를 위한 삶인가, 삶을 위한 교육인가』, 내일을 여는 책, 1997.

이종태, 『대안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육연구, 1998.
이종태, 『대안학교 대안교육』, 서울 : 민들레, 2001.
정유성,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4. 연속간행물

고병헌, 『교육 개혁 운동으로서의 대안교육운동』, 처음처럼 11월~12월호, 통권 제4호(서울 : 내일을 여는 책, 1997.
박형규, 『대안교육의 방향과 실제』, 처음처럼 Vol.1, No.5, 1998.
심성보, 『한국대안학교 운동의 현황과 과제』, 6 no.2, 서울 : 교육사회학연구, 1991. 10.
이중현, 『우리 교육의 문제와 대안교육 운동의 현황』, 우리 아이들 No. 60, 1997.

5. WEB SITES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간디고등학교 http://gandhischool.net/
성지고등학교 http://yssj.hs.kr/
양업고등학교 http://www.yangeob.hs.kr/
한빛고등학교 http://www.hanbitschool.net/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State and Activation Scheme of Alternative School.

Moon Mi Young

Academic Advisor: Professor Kim Young Gon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epartment of General Soci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world has transformed into a globalized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n this context, in an effort to regain the true form of education, alternative schooling appeared as the solution to the many voices of criticisms toward public education.

Alternative schools in Korea are voluntarily researched and run by teachers, parents, and education theorists—the very subjects of education, enabling these au courant schools to come up with solutions to problems that general school systems would find difficult to solve.

This thesis paper aims to examine the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chools, identify problems that contemporary alternative schools are facing, and explore better ways to activate them in society.

To carry out this research, I have examined and analyzed the educational ideologies, objectives, curriculums, methods, and conditions of Sung Ji, Han Bit, and Gandhi High School, and by reviewing their practiced cases, I have been able to identify several problems within these systems and come up with solutions to vitalize these school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racticed cases,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se alternative schools had several characteristics in common.

First, the educational ideology and image of students that alternative schools pursue focus on emphasizing an individual's freedom and free will, community spirit, morality, and independence.

Second, they pursue an education that intends to nurture well-rounded students, develop student's social skills, and stress the value of life and the ecosystem.

Third, the contents of their education is based on practicality to put an emphasis on social education rather than knowledge, and learning and working in an environmentally-friendly educational surrounding in an effort to teach students susceptibility and hard work.

Fourth, the educational method they utilize allows students to select their own programs based on their future aspirations and aptitudes, guiding them to actively and voluntarily participate in class.

Fifth, they aim to create a small school, value ecolife, and teach students to work together with the teachers as a whole.

As written above, each school has put in great effort to practice

alternative schooling, but after analyzing several cases, several problems have emerged inside this system.

First, there is a lack of specific programs and curriculums that will help pursue the alternative schools' common ideology of a community spirit.

Second, a training system for dutiful teachers who would be able to understand and devote themselves to the students does not exist, leading to issues regarding a lack of professionality, low salaries, and poor treatment.

Third, poor educational facilities, grounding, and an effort to strive for a small and efficient school result in serious financial problems.

Fourth, social awareness of alternative schools in addition to the biased opinions from neighboring schools, parents, and residents have become major problems.

Accordingly, to counter these various problems that alternative schools are currently facing, I have proposed several solutions hoping to improve their status.

First, alternative schools need to establish a systemized concrete model regarding their curriculums.

Second, alternative schools need to create a training system that will nurture teachers who fully understand the concept of alternative schooling.

Third, the government needs to undergo regulation reforms in order to support alternative schools both administratively and financially.

Eventually, alternative education will succeed only with the will of an educational theorist,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upport and regulation reforms, and an active and voluntary determination.

Therefore, it is only when the society finds ways to accommodate the positive aspects of alternative education into the education system, educational theorists and authorities endeavor to support alternative education, and the concept of voluntary alternative schooling spreads throughout society, that we will be able to improve and find solutions to the many problems regarding the standardized education prevalent in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of our society.